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⑨

〈지난호에 이어〉

그리고 공작기계 분야에서 화천을 비롯하여 대전, 대구, 부산 등지의 유수 메이커들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했는데, 그 결과 화천을 정부지원 모델업체로 선정했음을 밝혔다.

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 기술자들의 능력으로 기술도 개발하고 좋은 제품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꾸준히 지속하되, 우선 외국의 선진기계를 들여다가 시설을 갖추어 우리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원철 경제수석은 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손을 꼭 잡으며, 화천이 외국에서 기계를 들여와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일과 경비가 얼마나 들겠는지 물었다. 나는 기술진과 상의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오 수석은 청와대를 나서는 나의 손을 다시 한 번 꼭 쥐고는 "권 사장, 이 나라 공작기계의 발전이 권 사장에게 달렸으니 나를 믿고 열심히 진력해 주시오."라고 당부했다.

이리하여 화천은 정부로부터 80만 달러의 외화 지원을 받아 기계 도입을 서둘렀다. 1974년 4월 경, 이 돈으로 일본에서 들여온 기계는 공작기계의 내구도와 정밀도를 높이는 연마기, 플레너, 내·외경 연삭기, 평면연삭기 등으로, 화천의 품질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나는 귀중한 외화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비싼 신제품보다 중고제품을 세심하게 골라서 구입하였다. 새로 기계를 설치하고 난 1974년 여름 이후 화천의 제품 수준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화천은 판매에서 얻어진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해 나갔다.

야마젠(山善)과의 합작회사 설립 실패

화천이 공작기계를 만들어 판 지 십 수 년이 지나긴 했으나 일본 등 선진국 메이커에 비해 아직 기술수준은 한참 낮았다. 그리고 화천의 이러한 기술수준은 곧바로 우리나라 공작기계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1974년에 화천은 일본의 종합기계 판매상인 야마젠(山善)과 공작기계 전문업체인 다키사와((TAKISAWA) 철공소 등과 함께 공동출자하는 형식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나는 이 합작회사 발족의 적절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1975년 6월14일 3억3,600만 원의 자본금으로 '화천기계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로 하여금 합작회사 설립 시 화천의 대표 법인으로 참여시킬 계획이었다.

다키사와에서 들여온 기계는 대형 공작물을 가공하는 베드 연마기와 밀러 등 당시만 해도 국내 공작기계 업계에서는 새롭고 값비싼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다키사와는 자기네 공장에서 사용하다가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그야말로 한물 간 기계들을 보내왔던 것이다. 자기들에게는 이미 사용가치가 상실된 기계들을 합작투자란 명목으로 우리에게 떠넘기는 식이었다. 속았다는 생각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다.

이 합작 실패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 우리보다 앞선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사전에 모든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대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때 깨달았다.

그러나 이렇게 실패한 합작 파트너를 화천은 새로운 동반자로 맞아들였다. 다키사와 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 실수의 대가로 앞으로 화천이 원하는 사업이면 무슨 일이 되었든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이다. 그 약속은 1977년 화천이 NC선반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행되었다.

국내 최초의 NC선반 개발

국내에서 처음으로 NC(Numerical Control, 수치제어)란 말이 공작기계 앞에 붙여졌을 때 사람들은 모두들 그 신기함에 놀랬다. 형상이 복잡한 여러 기계의 부품들을 이 NC공작기계는 마치 지능을 갖춘 인공두뇌처럼 스스로 알아서 척척 잘도 깎아냈던 것이다. '자동화'라는 말을 붙여보면 이 기계의 성능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정작 그 기계가 혼자 힘으로 복잡한 공정을 실수 없이 해내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NC란 바로 공작기계에서 이러한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는 1975년에 당시로서는 최첨단 자동화 공작기계인 NC선반의 자체 개발에 도전했었다.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KIST와 공동연구에 들어간 것은 1976년 4월이었다. KIST가 기계의 설계를 맡고 화천은 설계대로 기계를 제작하는 방식이었다. 1976년 10월, 약 7,000만원을 투입한 공동연구의 첫 결실로써 본격 NC선반의 전 단계인 WNCL-420타입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기계는 NC화된 초보적인 것으로, 가능성을 확인했을 뿐 실용화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결정적인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자 업계와 학계에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다. '아직 선진국에서도 범용화되지 않은 첨단제품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무리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등등의 반대의견이었다. 특히 감사원에서 연구에 투자된 7,000만원 중 KIST에서 보조한 1,000만 원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돈을 낭비했다며 이 돈의 용도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공작기계의 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감사원 사람들은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주위의 이런 비판적인 분위기를 무릅쓰고 개발작업을 밀고 나갔다. WNCL-420 개발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일본을 오가며 입수한 관련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곧 WNCL-300타입의 개발에 착수했다. WNCL-300타입은 당시 일본에서도 신기종에 해당하는 최신의 NC공작기계였다. 드디어 1977년 5월, 내부적으로 '전용기 1호'로 이름 붙여진 NC선반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국내 최초의 NC선반이 탄생된 것이다. 이듬해인 1978년 9월과 10월에는 이를 더욱 개선하여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공작기계전시회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국제공작기계전시회에 각각 출품해 발전하는 한국 공작기계 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일본 FANUC사와의 합작회사 설립

나는 지금은 일본 메이커들에게 뒤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확신과 각오를 가지고 기술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바로 이 무렵에 NC선반 개발에 도움을 주었던 파낙사의 합작회사 설립 제의을 받게 되었다. 당시 파낙사는 세계 CNC공작기계 생산의 60%를 차지할 만큼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NC 콘트롤러 메이커로서, 한국 정부가 창원에 대단위 기계공단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도 이곳에 CNC콘트롤러 공장을 설립키로 계획하면서 한국의 마땅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나 역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 화천의 기술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 아래 합작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당시 국내의 삼성, 금서, 대우 등 대기업들이 파낙과의 합작을 타진하고 있었으나 파낙은 이들 대기업보다 화천과의 합작을 선택했다 그들은 무엇보다 화천의 적극적인 자세에서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닌가 싶다. 이리하여 1978년 봄, 5년 이내에 NC공작기계의 국산화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50대 50의 합작조건으로 나와 이나바 공동대표 체제의 한국뉴메릭주식회사(KNC)를 설립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우리나라 고대사 搨園史話 ⑳

(규원사화)

▣ 一沙 權 正 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東方諸山, 有馬耳 摩尼等山, 俗人幷以摩利呼之, 曾不相別. 盖馬耳 摩尼, 幷出於頭字之意也. 今廣州有修理山, 此必鷲山之意也; 積城有紺岳山, 則乃玄山之意也; 忠州有達川, 則是月川之意也; 而馬耳 摩利之爲頭嶽或頭山之訛, 尤可辨矣. 太白之一名曰白頭, 甲比古次之祭天處曰頭岳, 此非檀君祭天, 必隨頭名之山也, 乃檀君祭天處, 必成頭名之山也. 盖頭者, 最上或元首之稱也. 白頭爲東方諸山之宗, 而又是東人始降之地, 兼復, 元首檀君, 恒行祭天禮于其山, 當時之人, 名之曰頭山也, 必矣. 而甲比古次之頭嶽, 亦不出於此外也. 獨不知, 牛首河之名, 亦只出於沈牛首之俗耶? 此不可斷矣. 然則, 神市氏(之)降, 旣在[白頭於山](於白頭山), 乃漸(徒)[徙]西南, 復沿浿水而南來, 三氏之族, 又各四遷也. (耳)[且]太白旣爲東方靈地, 祭天大儀必始於其山, 則自古, 東民之崇敬是山也, 不尋常. (耳)[且]古(者)昔, 禽獸悉沾神化, 安捿於其山而未曾傷人, 人亦不敢上山 溺而瀆神, 恒爲萬代敬護之表矣. 夫我先民, 皆出於神市所率三千團部之裔. 後世, 雖有諸氏之別, 實不外於檀祖同仁之神孫. 因 雄儉.三神之, 開創肇定之功德, 常傳誦而不忘, 則古民指其靈山曰三神山者, 亦必矣.

동방의 여러 산에는 '마이(馬耳)'나 '마니(摩尼)' 등의 산이 있는데, 항간의 사람들은 뭉뚱그려 '마리(摩利)'라고 부를 뿐 일찍이 구별하지 않았다. 대저 '마이'와 '마니'는 모두 '頭'의 '머리'라는 뜻에서 나왔다. 지금의 광주에 '修理山'이 있는데 이는 필시 '수리산(鷲山)'이라는 뜻이며, 적성에 있는 '紺岳山'은 곧 '검은산(玄山)'이라는 뜻이며, 충주에 있는 '達川'은 바로 '달천(月川)'이라는 뜻이니, '마이'나 '마리'가 '頭嶽' 혹은 '頭山'이 잘못 전해져 그리되었음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태백'을 달리 일컬어 '백두'라 하였으며 갑비고차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던 곳을 '두악'이라 하였는데, 이는 단지 단군이 반드시 '머리'라는 이름이 붙은 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아니라 단군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은 반드시 '머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한다.

무릇 '머리'라 함은 가장 높다거나 혹은 으뜸 되는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백두'가 동방 모든 산의 으뜸이 되고 또한 동방의 사람이 하늘로부터 처음 내려온 땅이 되며, 게다가 더하여 으뜸 되는 우두머리인 단군이 항상 그 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예식을 행하였기에 당시의 사람들이 '머리산(頭山)'이라 이름하였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니 갑비고차의 '두악'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수하(牛首河)'라는 이름은 알지 못하겠는데, 이 역시 단지 소머리를 물 속에 담그는 풍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는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시씨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미 백두산에 있으면서 점차 서남쪽으로 옮기고, 다시 패수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니 삼씨(三氏)의 겨레들은 각자 더욱 더 사방으로 옮겨갔다. 또한 태백이 이미 동방의 신령스러운 땅이 되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큰 의식은 반드시 그 산에서 시작하였으니, 예로부터 동방 민족이 이 산을 숭상하다.

漫說 만설

天其運乎, 地其處乎, 日月其爭於所乎? 孰主張是, 孰維綱是? 孰居天地之內, 恒推以行是? 意者, 其有機氣之不得已耶? 其運轉而不能自止耶? 觀! 夫大界列宿, 燦爛明朗, 其光自何, 其大幾何? 觀乎! 千之岡而行人如豆; 望乎! 百里之海(而)歸帆似葉; 仰乎! 九萬里之遙而星辰如燭, 其大幾何, 其光何幾? ! 地天之隔, 非但九萬者里耶! 人行于市而肩尻摩, 車轉于通衢則其 搏. 星辰麗于穹蒼, 則昭昭耿耿, 齊齊整整, 井然有序, 罔或有侵. 孰弓是, 孰主張是? 日遠於星, 月近於星耶? 抑! 亦星居乎最遠耶? 日月之大, 較於列宿, 何如? 洪爐之火, 隔丈而燎之, 則不過微溫; 滿車之氷, 距尋而當之, 則只感微凉. 日月之氣, 來自九萬里而凉熱逼人, 其熱幾何, 其寒凡幾?

하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땅이 멎어 있는 것인가, 해와 달이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이를 주재하여 펼치고, 누가 이를 붙잡아 다스리며, 어느 누가 하늘과 땅에 머물며 항상 이를 밀어서 움직이게 하는가? 생각건대 그 곳에는 바탕이 되는 기운이 있어 마지못해 그리 되는 것인가, 그 움직이고 구르는 것은 스스로 멈추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 넓은 세계에 늘어서 있는 별자리를 바라보노라면 멀디멀고도 찬란하게 밝으니,

그 빛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그 크기는 얼마만한 것인가? 천 길 높은 산마루에서 살펴보노라면 지나다니는 사람은 마치 콩알만하고, 백리의 바닷길을 바라보노라면 돌아오는 돛단배가 마치 잎사귀 같은데, 9만리의 아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면 늘어선 별들은 마치 촛불과도 같으니, 그 크기는 얼마나 되며 그 밝기는 얼마만한 것인가? 항차 땅과 하늘과의 간격이 단지 9만리 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저자거리를 지나다니자면 어깨와 꽁무니가 맛닿이게 되고, 수레가 번화한 네거리를 지나가노라면 곧 그 바퀴가 부딪치게 되는데, 늘어선 별들은 높고 푸른 하늘에서 빛을 발하면서 밝디밝게 반짝거리고 가지런히 질서가 있어 행여나 침범하는 일도 없으니, 누가 이를 이끄는 것이며 누가 이를 주재하여 펼치는 것인가? 해는 별보다 멀고 달은 별보다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별이 가장 멀리 있는 것인가? 해와 달의 크기는 별들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큰 화로의 불도 열 자 떨어져 불길을 쬐면 단지 따뜻할 뿐이요, 수레에 가득 실은 얼음도 얼마 거리를 두고 마주 서 있으면 단지 서늘할 뿐인데, 해와 달의 기운은 9만리의 먼 곳으로부터 오면서도 춥고 더움이 사람을 다그치니, 그 열기는 얼마만한 것이며 그 냉기는 또한 얼마만한 것인가?

(다음호에 계속)

수천 명을 살린 곧은 말 한마디

제1화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보통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번 간단히 거짓말을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아무리 곧은 사람이라도 조금은 마음이 흔들리게 마련이다.

북위시대에 북위 황제 탁발도(拓拔燾)는 북위의 역사를 남기고 싶었다. 그리하여 한족(漢族)으로 북위에서 신임을 받고 권력을 흔들었던 최호(崔浩)에게 ≪국기(國記)≫라는 북위의 역사를 쓰게 하면서 고윤(高允)과 더불어 이 일을 하게 하였다.

이 책이 완성되자, 최호는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책의 내용을 돌에 새기어 세웠는데, 3백만 전의 경비를 사용하였다. 최호는 위대한 저작을 완성하여 이를 기화로 더욱 유명해 지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최호는 북위 황제의 조상들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던 것이다. 사실대로 역사를 쓴 것이니 당연히 북위의 황족인 탁발씨들은 과거에 야만적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돌에 새겨서 늘어놓았으니, 대 놓고 탁발씨를 만천하에 창피를 준 꼴이 되었다. 이 사실을 안 황제 탁발도는 크게 화를 냈고, 최호는 필화를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 필화는 당연히 최호와 함께 이 책을 저작한 고윤에게도 미치게 되어 있었다. 최호가 체포되자 북위의 태자는 그의 스승이었던 고윤도 잡힐까 걱정하여 고윤을 불러서 그날 밤에 태자궁에서 재우면서 내일 황제를 만나거든 그 역사는 최호가 쓴 것이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태자가 고윤을 어떻게든 필화에서 벗어나 살리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태자는 아버지 탁발도에게 고윤은 최호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니 죄가 없다고 미리 변명까지 해 두었다.

이제 고윤은 황제를 만나서 눈 딱 감고 모든 죄를 최호에게 뒤집어씌우면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고윤을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자기는 늘 황제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잠시 갈등을 겪었게 지만 고윤은 사실대로 말하였고, 황제는 고윤의 죄가 오히려 최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

황제는 다시 태자가 말한 대로 최호가 시키는 대로 쓴 것이냐고 물었지만 고윤은 태자가 자기를 살리려고 그리 말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최호는 그 책의 대강(大綱)을 결정하였을 뿐이며, 저술은 자기가 최호보다 많이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제 고윤은 필화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다. 역시 죽음을 앞에 두고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모습을 본 황제는 태자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정직하구나!"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임금을 속이지 않려려 한 것을 칭찬하며 사면하였다. 그리고 최호를 불러 신문하는데, 대답하는 것에 조리가 없었다. 결국 최호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황제는 고윤에게 그 내용으로 조서를 기초하라고 하였다. 이제 황제의 뜻대로 쓰기만 하면 만사가 끝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황제를 보고 역사는 사실대로 쓴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최호에게 죄를 줄 수 없다고 하였다.

탁발씨가 야만이었다고 쓴 것 때문에 최호가 죽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 황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었다. 몇 번 죽음에서 살리려고 했건만 다시 황제의 심경을 건드린 것이다. 황제는 무사로 하여금 고윤을 체포하게 했다.

그러나 황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거짓을 말하지 못하는 고윤에게 감동하였다. 그리고 곧 고윤을 풀어 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응당 수천 명의 죽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최호는 이 일로 죽었지만 이 필화사건은 축소된 범위에서 마무리 되었다. 고윤이라고 목숨을 아까와 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다음호에 계속)

別世

志泉 權泰日 본원 고문 별세

志泉 權泰日 본원 고문이 지난 6월 2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검교공파 33世).

권고문은 한양대공과대학 경영학과와 육군대학국방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카프락탐(주) 상임감사, 대진동관(주) 대표 등을 지냈으며 본원 감사를 15여 년간 연임하면서 오문 문사진작과 숭조돈목의 길을 걸었으며 매우 활동적이며 창의적 자질을 겸비한 노력파이기도 하였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친 육군의 명장으로서 12사단 대대장, 주월십자성 부대 제1군수 지원단장, 합동참모본부 인사기획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충무·화랑·보국훈장 등을 수훈했다.

지난 6월 24일 3일장으로 많은 조문객이 참례한 가운데 대전 현충원에 안장했으며, 미망인 지경식 여사와 3남을 두고 있다.

▪ 역사기행

삼전도(三田渡)에 세워진 대청황공덕비(大淸皇功德碑) 현장을 찾아서

▣ 향촌 권 오 창 (본원 자문위원)

삼전도에 세워진 대청황공덕비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다. 이 비는 청(淸)나라 태종(太宗)의 공덕을 기리는 비(碑)이다.

이는 병자호란(丙子胡亂)의 발발로 인조(仁祖)가 남한산성에 몽진하여 항전하였으나 45일 만에 청태종(淸太宗)에게 삼전도에 설치된 수항단(受降壇)을 향하여 1636년(인조 15년) 1월30일 추운 겨울 날씨에 남한산성의 성문을 열고 비통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인조가 청태종 앞에서 항복하는 의식은 여진족들이 그들의 천자를 배례하는 의식과 같았다. 인조는 곤룡포 대신 융복을 입고 수항단 아래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닿게 하는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를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청국에 항거한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을 빌었다. 머리가 땅에 닿을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몇 번이고 다시 찍어야 하였고 그래서 이마에 피가 흘렀다고 전한다. 청태종은 청군과 조선의 군사와 조신들이 늘어선 가운데 조선국왕의 죄를 용서하고 신하로 맞이한다는 측서를 내렸다. 그리하여 승전국 청태종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청태종의 공덕비까지 세워준 치욕의 현장기록이다.

청의 요구는 ①조선은 청에 대하여 신(臣)의 예를 행할 것 ②조선은 명(明)나라와의 관계를 끊을 것 ③조선은 왕의 장자와 차자 및 대신의 자녀를 인질로 보낼 것 ④청(淸)이 명(明)을 정벌할 때 원군을 파견할 것 ⑤내외 제신과 혼인을 맺고 개인적인 우의를 굳게 할 것 ⑥황금 200냥 백은 1000냥을 그리고 20여종의 물품을 세폐로 바칠 것 ⑦절사 등은 명(明)나라의 구례를 따를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청(淸)에 가고 대청관계의 척화파인 홍익한 윤집 오달제가 잡혀가 심양에서 참형을 당하고 김상헌도 잡혀갔다가 옥고를 치르고 7년 만에 돌아왔다.

그 후 1639년(인조 17년) 청은 조선에 강요하여 청태종의 송덕비를 삼전도에 세우도록 하였으며 조선은 완전히 명(明)의 예속을 벗어나서 새로이 청(淸)에 종속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러한 치욕을 씻고자 임경업(林慶業) 장군 등이 명(明)과 연락하여 청(淸)을 치려하였으나 실패하고 만다. 임경업 장군은 병자호란 때 의주부윤이 되어 청의 군사를 국경에서 막으려 하였으나 청은 침공로를 속여서 침입하였다.

(다음호에 계속)